

## 2022 열린인생 3.

# 내 힘으로 하면 결국 엉키고 묶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은총으로 풀린다. (은총의 자리에 있는가?)

[사무엘하 9: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무엘하 9:3]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9: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 1. 은혜 = 베품

삼상 9:1에 보니 다윗은 '~ 은총을 베풀리라'. / 3절 '~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 7절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다.

베푸는 것은 중요하다. 은총의 속성은 베품에 있다. 누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다. 베품을 생각할 때 힘의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힘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베풀 수 있다고 말한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다.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약하고 없는 사람 보다는 베품을 주기 쉬워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베품은 철저히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 베품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것도 풀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영적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다. 마음의 경작에 관심을 갖는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특별히 겔36:26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경작하는 일을 한다.

[에스겔36:26-27]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영의 상태이다. 2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굳고 경직된 상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연단을 주신다. 연단은 고난이다. 고난은 우리의 위치를 아주 가까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하게 한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먹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바로 그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것이 없다. 베품은 바로 그 상태이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다. 받아야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베품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나의 연약함, 두려움, 근심, 걱정, 죄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실제적이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 바로 그 연약함의 공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어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갓난아이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엄마의 존재는 갓난아이에게 전부가 된다. 엄마를 향한 아기의 갈망은 진실이다.

절박함이다. 그 절박함이 엄마의 존재를 선명하게 한다.

어린아기처럼 엄마의 사랑에 잠겨야 한다. 충만하게 잠겨야 한다. 그 사람이 베풀 수 있다.

## 2. 결핍

베풀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문제는 결핍으로부터 온다. 결핍이 있기에 움켜 쥐는 것이다. 결핍이 있기에 인색한 것이다. 결핍이 있기에 자아가 강한 것이다.

충만하면 베풀 수 있다. 가득차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베품은 충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충만함은 과하지도 않다. 1mm의 오차도 없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아주 잔잔하게 넘쳐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함께 안정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결핍의 공간으로 그 충만함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결핍의 공간에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영적 충만함의 강은 결핍이 있는 곳으로 상처와 연약함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충만하게 된다.

다윗의 충만함은 므비보셋의 결핍으로 흘러들어 갔다. 그리고 므비보셋의 결핍을 충만하게 채웠다. 에스겔47장이 바로 그 장면이다. 성전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 충만함의 절정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다. 채우시는 분이시다.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 충만함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보내신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충만하게 흘러보낼 수 있었다. 다윗이 흘러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받은 사람이 흘러보낼 수 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 3. 은총 그리고 긍휼

[사무엘하 9: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터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산다. 은총의 절정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런 므비보셋의 모양은 두 발을 다 저는 인생이다.

왜 성경은 은총 받은 므비보셋의 인생을 두 발을 다 저는 인생으로 보게 하실까?

오늘 므비보셋의 은총이 극대화된 이유는 므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이다. 두 발을 다 저는 연약한 자가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다. 오늘 누가 왕의 상에서 항상 함께 먹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을까?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과 같은 자이다. 내 연약함을 아는 자, 내 부족함을 아는 자, 강건함이 아니라 측은해 보일 정도로 두 발을 저는 인생.

바로 그 모습이 자아가 죽은 모습이다. 오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바로 므비보셋의 저는 발을 지닌 자들이다. 한 발도 아니라 두 발 모두 저는 인생. 그 인생이 왕의 테이블에 합류하여 항상 먹을 수 있는자이다.

긍휼을 받을 수 있는자. 우리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긍휼 때문이다. 긍휼을 기억하라. 긍휼은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다.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긍휼이 여기시는 왕의 긍휼.

오늘 내 인생에 저는 두 발 때문에 왕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겸손하자. 오늘 내가 저는 그 인생의 두 발에 하나님은 긍휼로 함께하셨다. 므비보셋의 저는 두 발은 여호와의 긍휼이더라. 아멘.